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돈 보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꼭꼭 씹어 먹기

달포정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하겠네요. 우리말 실력도 늘려볼 겸 우리나라 단편소설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은 선봉기나 에어콘에 무더위의 맛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더우면 등목을 하고 부채로 부치거나 발을 내려놓고 문을 열면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지요. 잘 익은 수박 한 덩이를 찬 우물물에 담갔다가 나눠먹으면 더위가 물러나곤 했어요. 저녁이면 명식을 깔고 옥수수를 썰며며 사금 파리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놀이했지요. 아, 그 시절이 참 그리워요.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달포 전에 보았을 때보다 이들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다. (한수산·부초)

마수결이: 장사 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맨 처음으로 부딪는 일을 의미하기도 해요. (마수결이에 수월치 아니한 태령을 만나서 얼마만큼 난색이 있어 하는 죽헌을 가다듬어서...) (최남선·심준순례)

사금파리: 사기그릇의 깨어진 조각 (맹이치기에 실증이 난 아이는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금파리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다.) (박경리·토지)

희나리: 채 마르지 아니한 잠자. (잠자기배의 희나리가 터지는지 탁탁 뛰는 소리가 드림통을 개조해 만든 화피 문통에서 새 나왔다.) (김소진·그리운 동방)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계몽작 '백치아다다'

1930년대 평안도 어느 마을과 신미도를 배경으로 육체적으로는 정상이나 돈의 욕망에 빠진 남자와 비록 백치에 병어리지만 순수한 정신을 지닌 아다다의 대비를 통해 황금만능에 물든 인간들을 비판하고 있는 계몽작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의 이 소설은 물질적 풍요와 인간적 행복을 생각하게 하죠.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행복을 갈망하는 한 여인의 삶과 그 비극적 운명을 통해 황금만능 세대에 대한 비판과 휴머니즘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작가가 주인공을 백치와 병어리로 설정한 의도를 파악하며 읽어보면 더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죠.

병어리 처녀 아다다는 지참금을 가지고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가난하게 지내던 시집 식구들은 처음에는 아다다에게 잘 대해 주었으나, 그녀가 지참금으로 가지고 간 돈을 밀천으로 재산을 불러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남편은 병어리 아내를 구박한다. 남편은 추수한 돈을 주색으로 탕진하고 큰 돈을 벌어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와서 살지만 시댁 식구는 팔리지 않고 오히려 아다다를 구박한다. 결국, 아다다는 남편에게 소박

을 맞고 친정에서마저도 버림을 받는다. 그 후 아다다는 집을 나와 자신을 사랑해주는 수릉이라는 종각과 섬으로 도망쳐 살게 되고, 난생 처음으로 행복을 느낀다. 어느 날 수릉이가 자랑스럽게 농사지를 땅 살 돈을 아다다에게 보여준다. 아다다는 돈이 없는 줄 알았던 수릉에게 돈이 많음을 알고, 불행의 씨앗으로 느껴지는 돈을 바다에 던져 버린다. 돈이야말로 자기가 예전에 사랑을 잃게 된 원인이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미처 때려라기 전에 아다다를 뒤쫓아온 수릉이는 바다에

황금만능에 물든 인간 비판 인물 실명 '확실이' 비극 암시 '백치'는 순수한 인간성 표현

떠내려가는 돈을 건지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그가 벌벌 떨고 있는 아다다를 사정없이 밟길로 차차 아다다는 언덕에서 굴러 물속에 잠겨 죽고 만다. 수릉이는 물속에서 영원히 잠들려는 아다다를 못 잊어 함인지, 흘러 버린 돈이 차마 아까워서 인지 주먹을 부르친 채 급실거리는 물결만을 쏘아 보고 있다.

1935년 9월 <조선 문단>에 발표된 이 작품은 백치이고 병어리인 '아다다'라는 여인이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지만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다가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인생을 보여 주고 있지요. '아다다'는 병어리이며 백치인 여인으로 '확실이'라는 이름이 있으나 '아다다' 소리만 발음되기에 별칭으로 붙여진 이름이죠. 이는 그녀가 정상적인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아다다는 육체적으로는 불구이지만, 정상인 사람보다 더 순수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택된 이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백치이고 병어리인 인물의 실명이 '확실이'라는 것은 아이러니로 결국 이 작품이 비극임을 암시하죠. 또한 아다다를 병어리이자 백치로 설정한 것은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 속 인물은 '돈'을 중심으로 대립된 성격을 보이죠. 아다다는 돈보다는 사랑을 추구하는 인물이죠. 수릉은 돈을 벌며 행복하게 살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다다가 돈을 버러 자신의 꿈이 좌절되자 아내를 죽이는 부정적 인물로 묘사되죠. 작가는 아다다를 통해 물질 위주의 세상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어요. 전 남편이나 수릉이가 아다다 그녀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아다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물질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알고 작은 행복과 애정을 원하는 것이죠.

아다다의 순수성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져 마음 아프게 하네요. '돈과 행복'에 대한 주제의 논술 문제가 나온다면, 이 작품을 떠올릴 수 있겠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계사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사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품 나는 옷 많이 사입고 싶어요

저희 집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품 나는 옷도 못 입어요. 전 바지 욕심이 좀 많은데 못 사서 짜증나요. 멋진 옷이 나올 때 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D:돈많이벌고싶어)

쉽게 집착하면 쉽게 싫증나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사고 버리는 모습 속에는 내 마음과 삶의 태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을 잘 조사해서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즉흥적으로 마구 사들였다가 얼마 후에 필요 없다고 다시 내다팔거나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더라도 만족하며 오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 우리들이 일으키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요. 특히 무언가에 집착하여 물건을 사들일수록, 싫증내기도 쉽습니다. 인터넷에서 '쇼핑중독'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하겠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들이고, 물건이 손에 들어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투정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사랑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스님은 다른 절에서 이번 초파일을 지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 학생 어른들과 함께 종이를 자르고 접고 붙여가며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일을 다 마치고 종이조각들을 휴지통에 버리려고 했지요. 그때 어느 어머니가 "스님, 그 종이 제게 주세요." "왜 그러시지요?" "그건 저희 애들에게 아주 좋은 장난감 이거든요"라면서 구겨진 종이조각들을 소중하게 펼쳐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과 마음까지 참 남다른데 싶었지요. 오늘도 그 어머니를 생각해봅니다. 똑같은 물건을 쓰레기로 보는 마음과 귀한 장난감으로 보는 마음이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옥천암 청소년부 지도부사운사 스님)

The comic strip is a 12-panel narrative. Panel 1: A woman (A-dada) is talking to a man (Bae-cheo). Panel 2: A-dada is talking to Bae-cheo. Panel 3: A-dada is talking to Bae-cheo. Panel 4: A-dada is talking to Bae-cheo. Panel 5: A-dada is talking to Bae-cheo. Panel 6: A-dada is talking to Bae-cheo. Panel 7: A-dada is talking to Bae-cheo. Panel 8: A-dada is talking to Bae-cheo. Panel 9: A-dada is talking to Bae-cheo. Panel 10: A-dada is talking to Bae-cheo. Panel 11: A-dada is talking to Bae-cheo. Panel 12: A-dada is talking to Bae-cheo.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외설 범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변화와 불꽃기도를 올릴 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역은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외설범당을 개설.

세계 최대층 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대층 탑인, 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쌀바쉬 건칠 (중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당때 유씨 할머니가 공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미암(쌀바쉬)이라 불렀으며, 비위에서 원적의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마지막 남은 소나무(옥송) 茶心마루 공장직판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차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구분	크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탁자	1200×600×300 (小)	300,000	160,000
	1300×770×300 (中)	400,000	200,000
	1500×770×300 (大)	500,000	260,000
침대	1800×770×300 (特大)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 ▶ 옥송좌탁은 원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 ▶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직업으로 제작.
- ▶ 소재: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옥송(옥향목) 사용
- ▶ 시공: 치마, 기실의 좌탁, 소파대용 좌탁,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책상상 등
- ▶ 사용법: 물결레일이 가능하여 주기적으로 기름 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해져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 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 천소현)